

##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 요체

문 병 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 1 들어가는 말: 연원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자주 이 말은 “칼빈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모토로 집약된다. 오직 성경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다 들어 있다.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할 때, 그것이 가장 신학적이라고 여겼다. 그의 신학은 성경에서 시작되고, 성경에서 머문다.

칼빈의 영향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복음”만을 “성경적 복음”이라고 보았다. 이는 “성경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매우 열린 입장을 지니고 “성경적 복음”을 “성경의 복음”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주의, 혼합

---

\* 논문투고일 : 2013. 7. 31

논문수정일 : 2013. 8. 27

게재확정일 : 2013. 9. 7

주의, 다원주의와는 분명 대조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비록 그들이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경우에도-“복음”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복음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sup>1</sup>

개혁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참 신학(theologia vera)과 참 경건(pietas vera)을 엄밀하게 추구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라는 이름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개혁주의가 “보수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고유한 기원(origo)과 근원(fons)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주의가 “근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참 근본을 교회의 서고 넘어지는 조향으로서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의 이러한 보수적, 근본적 성향은 단지 성향에 그치지 않고 신학적 정밀성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현저한 예를 16세기 말 이후부터 칼빈의 후예들 즉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립된 개혁주의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y)<sup>2</sup>에서 발견하게 된다.

과연 “우리의 신학자(theologus noster)”라고 불릴만한 칼빈과 뚜레틴, 바빙크, 카위퍼, 핫지, 워필드 등은 단지 시대적 변증을 수행한 한시적인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를 충실히 계승·심화·발전시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부요하게 만들었다. 개혁된 교회가 그러하듯이, 개혁주의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reformanda).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회고하면서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전망하면서 내딛는 자리이기도 하다.

---

1 그러나 종교개혁의 본질이 “복음적 신앙(evangelical faith)”에 있으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라는 “근본공리들(fundamental axioms)”을 내포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개혁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의 용례는 항상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Cf. Heinrich Bornkamm, *The Heart of Reformation Faith*, tr. John W. Doberstein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15-44.

개혁주의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는다(딤후 3:16).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딤후 3:14)이 성경의 진리이며 성경적 진리라는 것을 고백한다. 본고는 개혁주의의 이러한 본질에 주목하여 그 역사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주요한 교리 중심으로 이어서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장로교회에 비추어 개혁주의가 서야 할 바람직한 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일별함으로써 확정한다.

## 2 개혁주의와 개혁신학

### 2.1 정의적 규정: 개혁주의의 객관성

“개혁주의(Reformed)”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채롭다. 최광의(最廣義)로 이를 이해하는 입장은 그것이 성경적 진리와 정통 신학 그리고 삶을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개혁신학자 오스트헤번(M. Eugene Osterhaven)은 그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에게 “개혁주의(Reformed)”는 고대 이스라엘과 초대 교회의 고난 받는 신앙을 마땅히 감사하고, 어거스틴과 루터와 함께 서서 죄와 주권적 은혜에 관한 교리들을 견지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전 생애를 복종시키고, 성령을 은사와 은총의 유일한 근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여기에서 칼빈과 그 후예들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 것은 이를 당연히 전

---

2 M. Eugene Osterhaven, *The Faith of Church: A Reformed Perspective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2), xii.

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주의를 광의(廣義)로 이해하는 경우, 자주 이는 종교개혁(Reformation)과 동일시된다. 저명한 역사학자 오버만(Heiko A. Oberman)은 개혁주의를 종교개혁의 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칼빈의 종교개혁을 루터의 종교개혁과 도시 종교개혁을 잇는 제3기 형태로 여기고 이를 “피난민 종교개혁(the Reformation of the Refugees)”이라고 불렀다.<sup>3</sup> 오버만은 종교개혁의 본질을 “권력과 허장성세(虛張聲勢)로부터 벗어나서 설교와 기도로 나아가는 전환”이라고 규정하였다.<sup>4</sup> 그리고 칼빈은 이러한 “전환”을 신학적으로 승화시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이로써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풀어내었다는 점에서 가히 새로운 단계의 종교개혁을 수립했다고 보았다.<sup>5</sup>

오버만이 이렇듯 개혁주의를 종교개혁의 일부로 여겼다면,<sup>6</sup> 오스트헤번은 역으로 종교개혁을 개혁주의의 일부로서 파악했다. 오스트헤번의 다음 정의는 이러한 경향을 드러낸다.

종교개혁은 단순하나 고급스러우며, 사도적이고 성경적인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종교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종교개혁은 기독교를 그 본래적 순수함 가운데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와 지지도 없이 수 세기 동안 붙들고 왔던 신앙과 삶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다.<sup>7</sup>

---

3 Heiko A. Oberman, *The Reformation: Roots and Ramifications* (Grand Rapids: Eerdmans, 1994), 217-220.

4 Oberman, *The Reformation: Roots and Ramifications*, 26.

5 Oberman, *The Reformation: Roots and Ramifications*, 218.

6 오버만과 같은 입장은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통상적이다. Cf. Hans J. Hillerbrand, *The World of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1981).

7 M. Eugene Osterhaven, *The Spirit of the Reformed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1),

19.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칼빈의 예에서 보듯이 그 의미가 “경건”에 가깝다.

최광의, 광의의 이해가 있으나, 대체로 개혁주의는 협의(俠義)로 이해된다. 이 경우 개혁주의는 루터란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칼빈과 그를 잇는 후예들의 신학 즉 “칼빈주의”를 지칭한다. 이런 입장을 개진하는 학자들은 “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쾰빙글리와 불링거의 뿌리히 종교개혁과 오이콜람파디우스의 바젤 종교개혁 등 스위스 종교개혁을 아우르는 경향이 있다.<sup>8</sup> 이는 맥닐(John T. McNeill)이 지적하였듯이, 스위스의 도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언약, 성령, 성례, 권징 등을 다루면서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의 특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그렇다면 “칼빈주의”로서 개혁주의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그것은 “칼빈의 유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여기에서 널리 인용되는 칼빈 신학자 펄만(Paul T. Fuhrmann)의 말에 주목하자.

칼빈의 진정한 유산은 실로 구조가 아니라 방법에-사람, 그리스도, 믿음, 세계, 성경, 종교, 삶 등 모든 것들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애쓰는 방법에 있다.<sup>10</sup>

여기에서 펄만은 개혁주의의 본질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곧 ‘하나님의 자기 세계관’에서 찾고 있다.

우리가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칼빈의 사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세계관’을 창조, 계시, 구원의 전 영역에서 가장 뛰어나게 추구·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life-view, world-view). 그것은 관점 자체를 하나

8 Cf. John Dillenberger and Claude Welch, *Protestant Christianity: Interpreted through Its Develop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4), 78-89.

9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3-89.

10 Paul T. Fuhrmann, *God-Centered Religion* (Grand Rapids: Zondervan, 1942), 23.

님으로부터 찾고, 관점에 따른 사유 즉 ‘사상’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칼빈주의에 관한 고전적 명저를 남긴 미터(H. Henry Meeter)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언급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이다(The central thought of Calvinism, therefore, the great thought of God).<sup>11</sup>

로마 가톨릭이 교회를 위한 신학을 했고, 루터가 성도 개인을 위한 신학을 했다면, 칼빈은 하나님을 위한 신학-곧 하나님의 신학을 했다. 칼빈은 자신의 신학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신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대한 유산으로 남겼다. 칼빈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밀러(Charles Miller)는 다음 말로써 이러한 점을 암묵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칼빈주의의 영향은 로마 가톨릭과 같이 교회적이지 않으며, 루터와 같이 개인적이지 않으며, 그것은 주로 이념적(ideological)이다.<sup>12</sup>

여기에서 “이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에 중심을 두고 그분의 주권을 모든 것의 불변하는 가치로 여기는 칼빈주의의 근본 특성에 충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칼빈주의자들(Calvinists, Calvinians)은 ‘칼빈의 사상’이 아니라 칼빈에 의해 조명된 ‘하나님의 사상’을 계승하여 체계적으로 심

---

11 H.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Kregel, 1960), 32.

12 Charles Miller, “The Spread of Calvinism in Switzerland, Germany, and France,” in *The Rise and Development of Calvinism*, ed. John H. Bratt (Grand Rapids: Eerdmans, 1964), 27.

화시킴으로 역사상 개혁주의 곧 칼빈주의를 수립하였다.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일체성(unity)과 연속성(continuity)은 그들이 공유한 ‘하나님 사상’ 그 자체에 객관적으로 놓여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대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주권(God’s sovereignty)”을 본질로 삼고 우리의 주관을 배제하는 칼빈주의의 객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sup>13</sup>

칼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Nostri non sumus, sed Dei)”라는 자기부인(自己否認)에 “기독교 철학(philosophia Christiana)”이 가장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보았다.<sup>14</sup> 이러한 입장의 근거에는 칼빈의 ‘객관성’이 놓여있다.

칼빈의 “나”는 불가분리하게 그의 교리에 부착(附着)해 있다. 루터의 경우, 주관적 요소는 종종 어떤 진술에 나타난 객관성 요소를 변모시킨다. 정반대로 칼빈의 경우, 객관적 요소는 주관적 요소를 압도한다. 그러나 주관적 요소를 압도함으로써, 객관적 요소는 주관적 요소의 실체를 보존한다.<sup>15</sup>

이러한 ‘객관성’으로 말미암아 ‘칼빈의 칼빈주의’와 ‘칼빈주의의 칼빈’은 시간을 뛰어 넘어 유기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주의”에 대한 미터의 다음 정의는 이러한 이해를 반영한다.

13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33-36.

14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libros quatuor nunc primum digesta, certisque distincta capitibus, ad aptissimam methodum: aucta etiam tam magna accessione ut propemodum opus novum haberi possit*, 1559, 3.7.1,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2.505-506. 본서에 대한 인용은 이하 *Inst.* 3.7.1(CO 2.505-506)과 같이 표기. 본서에 대한 인용은 다음 영어 번역본을 참조한다.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15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7), 242.

칼빈주의는 존 칼빈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사상 체계에 적용되는 이름이다. 그는 이 체계에 대한 주요한 설명자로 인식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체계에 속한 모든 사상들의 원(原) 창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칼빈주의는 단지 의견들을 집성(集成)한 것이 아니라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전체 개념들의 총합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통된 뿌리를 가진 하나의 근본원리를 따르는 유기적 전체이다.<sup>16</sup>

여기에서 미터는 개혁주의가 칼빈이 여전히 숨 쉬는 칼빈주의자들의 사상 체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터가 말하는 “유기적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근본원리”는 무엇인가?

## 2.2 개혁주의 근본원리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대변자 리이쓰(John H. Leith)는 개혁주의를 “고전적 개혁신학, 1517-1564,” “개신교 학문주의, 1564-1755,” “계몽주의와 19세기의 위기, 1775-1918,” “새로운 종교개혁 신학, 1918-1955,” “신학적 수수께끼와 경험주의 시대, 1955 이후”로 나눈다.<sup>17</sup> 이러한 구분법은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칼빈의 신학과 이를 토대로 베자(Theodore Beza)와 뚜레틴(Francis Turretin)을 위시한 칼빈주의자들이 종합화·체계화한 신학을-이는 “개혁주의 학문주의(Reformed Scholasticism),” “개혁주의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y),” “정통 칼빈주의(Orthodox Calvinism)” 등으로 불린다-구분하는 것은 통상적이다.<sup>18</sup>

16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29-30.

17 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 Way of Being the Christian Community*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rev. ed.), 115-127.

18 Cf. Willem J. van Asselt, *Introduction to Reformed Scholasticism*, tr. Albert Gootje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1), 1-9.

이러한 리이쓰의 구분은 시대별로 나타나는 신학적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대체로 개혁주의의 본질, 원리, 특성 등을 논할 때 학자들은 그 신학적 고유성에 주목하고, 거의 예외 없이 칼빈의 신학에 그 연원을 문의(問議)한다.

원전을 중심으로 기독교 전 역사를 교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역작을 쓴 펠리칸(Jaroslav Pelikan)은 칼빈의 신학을 다루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 “말씀과 성령,”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감추어진 그리고 계시된 영원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하에 지면을 다수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개혁주의의 신학적 본질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sup>19</sup>

펠리칸의 이해는 바빙크(Herman Bavinck)에 있어서 좀 더 신학적으로 기술된다. 바빙크는 루터주의가 인간론적이라며 개혁주의는 신론적이며, 루터주의가 칭의를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articulus stantis et cadentis ecclesiae*)으로 여긴다면 개혁주의는 선택을 교회의 심장(*cor ecclesiae*)으로 여긴다고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혁주의에 속한 사람은 회고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에 돌리고 그 원인을 추적하며, 전망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부속시킨다. 루터주의에 속한 사람은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된 구원을 만족하는데 그친다.<sup>20</sup>

---

19 Jaroslav Pelikan, *The Christian Tradition: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octrine, vol. 4, Reformation of Church and Dogma(1300-170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183-244.

20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tr. John Vriend, ed.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2003), 177.

개혁주의가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다는 바빙크의 관점은 오스트헤번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상 구현되는 제 형태들을 언급함으로써 전체 신학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오스트헤번은 창조, 구속, 교회, 국가, 삶이 모두 하나님의 작정(decretum)과 정하심(ordinatio)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sup>21</sup>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전체적으로 계시하며, 그것이 언약 가운데 특징적으로 전개된다고 본다.<sup>22</sup>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경륜과 섭리는 아들의 구원에 있어서 절정에 이른다. 삼위 하나님은 만세 전에 구원을 협약하시어 구속자는 제2위 성자 하나님, 구속방식은 그의 대속, 구속백성은 선택으로 정하셨다. 이러한 구원협약(pactum salutis)이 역사상 성취되는 경륜이 언약이다.<sup>23</sup> 칼빈과 뚜레틴은 자신들의 대작(opus magnum)에서 언약을 신구약 전체로 이해한다. 개혁주의를 그 신학적 특성에 관련해서 말할 때 “언약신학”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sup>24</sup>

기독교 강요에서 언약신학에 대한 칼빈의 입장이 전개되는 신구약에 관한 장들은 기독교론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칼빈은 신구약이 그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경륜에 있어서 다양하다는 원리를 분명히 제시한

21 Osterhaven, *The Faith of Church: A Reformed Perspective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162-193.

22 Osterhaven, *The Faith of Church: A Reformed Perspective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56-66.

23 Cf.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Sin and Salvation in Christ*, tr. John Vriend, ed.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2003), 212-232;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95, rep.), 313-321, 354-377. 차알스 핫지는 구원협약을 “구원의 계획(the plan of salvation)”이라는 이름으로 논한다.

24 *Inst.* 2.10-11;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2, *Eleventh through Seventeenth Topics*, tr. George Musgrave Giger, ed. James T. Dennison, Jr.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4), 169-269.

다.<sup>25</sup> 신구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말씀의 실체라는 측면에서 칼빈은 율법과 복음을 이해한다. 율법은 언약의 법으로서 약속을 담고 있고 복음은 그 약속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소식으로 정의된다.<sup>26</sup>

칼빈에게 있어서 신구약, 복음과 율법의 언약신학적 이해는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Christus mediator legis)”라는 개념 가운데 뚜렷이 부각된다.<sup>27</sup> 멀러(Richard A. Muller)는 이 부분에 착안하여 칼빈과 칼빈주의의 연속성을 예정에 대한 칼빈의 기독교론적 이해에서 찾았다. 멀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인양서의 위격적 연합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필연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칼빈의 언약신학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8</sup> 존 녹스는 예정에 대한 언약신학적 입장을 전개함으로 장로교의 신학적 기초를 놓았다.<sup>29</sup> 이러한 입장은 개혁주의 신경이나 고백서 등에서 현저하게 전개되었다.<sup>30</sup>

칼빈의 언약신학은 그의 신학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구원론

25 *Inst.* 2.10.2.

26 *Inst.* 2.7-9, 특히 2.7.1-13; 2.9. 뚜레틴은 별도의 장을 두지 않고 신구약을 다룬 곳에서 율법과 복음을 함께 논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칼빈과 뚜레틴은 일치한다.

27 Cf. 줄저, Byung-Ho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Rule of Living and Life-Giving* (Milton Keynes, UK: Paternoster, 2006).

28 Richard A. Muller,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Grand Rapids: Baker, 1986), 17-38.

29 John Knox, “An Answer to the Cavillations of an Adversary Respecting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Works of John Knox*, vol. 5, ed. David Laing (Edinburgh: Bannatyne Club, 1856), 21-468.

30 B. B. Warfield, “Predestination in the Reformed Confessions,” in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vol. 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17-231.

적 원리로서 읽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후대 언약신학자들에게 미친 칼빈의 영향을 파악할 때 그 실체가 온전히 파악된다. 근자에 언약신학의 조건성(conditionality)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칼빈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그가 후대의 언약신학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sup>31</sup> 비록 그 성격은 다르지만 칼빈의 언약신학이 대륙과 영국의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32</sup>

칼빈은 속죄론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언약의 두 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sup>33</sup> 타락한 인류는 전적인 은혜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분명 그 선물은 그저 주시는 것이나 그저 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순종(obedientia passiva)과 율법을 모두 행하신 순종(obedientia activa)

31 칼빈주의자들의 언약신학에 미친 칼빈의 영향을 평가절하하고 그 자리에 쯔빙글리나 불링거를 대체하려는 경향을 가진 학자들의 다음 글들을 참조하라. J. Wayne Baker,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The Other Reformed Tradition*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80); "Heinrich Bullinger, the Covenant, and the Reformed Tradition in Retrospect," *Sixteenth Century Journal* 29/2 (1998): 359-376. 이를 반박하는 글은 다음 참조하라, Lyle D. Bierma, "Federal Theology in the Sixteenth Century: Two Tradition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5 (1983): 304-321.

32 칼빈의 영향을 받은 언약신학은 크게 두 흐름이 있다. 푸레틴(Francis Turretin)과 윗시우스(Herman Witsius) 등 대륙의 개혁주의 정통주의에 속한 신학자들은 창조와 구속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성취로서의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에 관심을 쏟았다. 한편 펠킨스(William Perkins), 볼(John Ball) 등의 잉글랜드 청교도 신학자들과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에 의해서 대변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은 대륙과 기본적인 관심사를 공유하지만 특히 율법의 기원과 용법에 치중하여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작품들을 참조하시오. Heinrich Hepppe,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ed. Ernst Bizer, tr. G. T. Thoms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0); William Ames, *The Marrow of Theology*, tr. John D. Eusden (Durham, N.C.: Labyrinth Press, 1983); John W. Beardslee III, ed. and tr. *Reformed Dogma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David A. Weir, *The Origins of the Federal Theology in Sixteenth-Century Reformation Thought* (Oxford: Clarendon Press, 1990).

33 *Inst.* 2.7.

을 통하여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친히 주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택한 백성에게 전가하심으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모두 성취하셨다. 이것이 새 언약 곧 피 언약이다. 이렇듯 칼빈에게 있어서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의 성취로서 순종의 조건성과 전가의 무조건성을 모두 함의하고 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의 성취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며, 성도의 구원의 성취이다. 그것이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구약을 완성한 신약의 경륜이다.<sup>34</sup> 여기에서 우리는 미터가 말한 “유기적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근본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로부터 이후 칼빈주의자들이 교리화한 성경 중심, 하나님 주권,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의 절대성, 성도의 감사와 책임이 모두 흘러나온다.<sup>35</sup>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칼빈의 언약신학을 정치하게 심화·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교리의 보편성(catholicity), 신경화(confessionalization), 성문화(成文化, coedification)에 주력하였다. 칼빈 사후 18세기 까지 사조를 형성했던 정통 개혁주의는 특히 일반철학과도 교호적인 상관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학을 추구하였다. 특히 개혁주의 신경들이 앞을 다투어 제정되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어 일군의 제자들을 양성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신학의 영향력은 단지 교

---

34 칼빈의 언약관에 관하여,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1), 126-141, 194-209, 264-304; James B. Torrance, “The Concept of Federal Theology—Was Calvin a Federal Theologian?” in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Calvin as Confessor of Holy Scripture*, ed. Wilhelm H. Neuser (Grand Rapids: Eerdmans, 1994), 15-40.

35 Cf. Anthony A. Hoekema, “The Covenant of Grace in Calvin’s Teach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2/2 (1967): 133-161; Paul Helm, “Calvin and the Covenant: Unity and Continuity,” *Evangelical Quarterly* 55/2 (1983): 65-81. 헬름은 칼빈의 언약신학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그의 영향도 모호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에도 여전히 견지된다. Cf. Paul Helm, *A Guide for the Perplexed* (London: T&T Clark, 2008), 138-147.

단이나 강단을 넘어서게 되었다.<sup>36</sup>

개혁주의의 “하나의 근본원리”는 곧 성경이다. “언약”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전체로 함의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를 언약신학으로 특정할 때, 그것은 “sola Scriptura”의 원리를 되새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개혁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변증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개혁주의는 어떤 현학적 틀에 갇힌 맹목적 독단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sup>37</sup> 카위퍼가 프린스턴에서 행한 스톤 강좌에서 보여주었듯이 칼빈주의는 신학적 특성으로만 로마 가톨릭주의(Romanism)이나 루터주의(Lutheranism)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sup>38</sup>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삶 중심으로 파악되어야 한다.<sup>39</sup> 사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진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교리이며, 신학이다. 과연 “오직 성경”을 근본 원리로 삼는 개혁주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를 답하는 길은 칼빈의 신학으로부터 추구되어야 한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본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칼빈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0</sup>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학자로서 목회자, 설교자, 주석가였다.<sup>41</sup>

36 Cf. van Asselt, *Introduction to Reformed Scholasticism*, 103-193.

37 Cf. Brian Gerrish, “Tradition in the Modern World: The Reformed Habit of Mind,” in *Toward the Future of Reformed Theology*, eds. David Willis and Michael Welker (Grand Rapids: Eerdmans, 1999), 11.

38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53). 본 강좌에서 카위퍼는 “칼빈주의”를 “삶의 체제,” “종교,” “정치,” “과학,”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다루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강좌에서는 그 “미래”를 논한다.

39 I.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Grandville, MI: Reformed Church Press, 1988), 89-107.

40 Cf. Wilhelm Niesel, *Was heisst reformiert?* (Munich: Kaiser Verlag, 1934).

칼빈의 신학을 일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칼빈 신학과 관련하여 소위 중심 교리(the so-called central dogma)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혹자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하나님의 주권, 성경 중심 등에서 찾았고, 혹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예정론,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하는 방법론으로부터 추구하기도 하였다.<sup>42</sup> 칼빈의 신학이 “sola Scriptura” 원리에 따른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무의하다. 왜냐하면 성경을 놓고 중심 주제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 2.3 개혁신학의 원리와 중심 교리

### 2.3.1 신학의 원리: 삼위일체론적-기독론적 계시 이해

칼빈의 신학이 그의 후예들에 의해서 칼빈주의로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학의 원리(principia theologiae)” 혹은 “계시의 원리(principia revelationis)”라는 개념이 신학의 서론으로서 논의되었다. 이는 존재의 원리와 인식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존재의 원리(principium essendi)는 하나님의 지식 즉 계시는 스스로 영원히-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존재한다고<sup>43</sup> 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계시하시고, 일하신다. 이러한 존재와 경륜의 삼위일체로부터 이 원리는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

41 Cf. 문병호, “신학자로서의 칼빈,” 오정호 편, 「칼빈과 한국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71-208; B. B. Warfield, “John Calvin the Theologian,” in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56), 484-485.

42 Cf. Richard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to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7), 82-87.

43 Cf. Cornelius Van Til, *The Defense of Faith*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55), 39-41.

이렇듯 스스로 존재하는 계시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믿음으로 수납된다. 이를 인식의 원리(*principium agnoscendi*)라고 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나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계시될 수 없다. 오직 계시된 계시(*revelatio revelata*)만이 우리에게 알려진다. 이를 모형계시(*revelatio ectypa*)라고 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주신 계시(*revelatio accommodata*)이다. 성경은 이러한 모형계시의 기록이다. 그것은 원형계시(*revelatio archetypa*)를 모두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진리이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수납된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떨어지고(受) 그 감화로 들어온다(納). 이러한 수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세상의 지식(*scientia*)이 이성으로 추론된다면, 성경의 지식(*notitia, cognitio*)은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된다. 성경을 인식의 외적(*externum*) 원리라고 하는 반면에, 성령 혹은 믿음을 인식의 내적(*internum*) 원리라고 부르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sup>44</sup>

칼빈은 이러한 계시의 원리가 삼위일체론적이며 기독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부 하나님은 계시의 시작 혹은 뜻이며, 성자는 계시물 즉 말씀이며, 성령은 계시의 작용이다.<sup>45</sup>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계시 자체이며 그 완성이다. 그리하여 그는 생명의 빛이시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Deus in se*)’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Deus pro nobis*)’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속사적

---

44 Cf.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89, 207 ff.; Abraham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tr. J. Hendrik De V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341 ff.;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New Edition containing the full text of Systematic Theology and the Original Introductory Volume to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6), *The Original Introductory Volume to Systematic Theology*, 93-97, 116-186.

45 이는 칼빈의 경륜적 삼위일체론적 이해에 부합한다. Cf. *Inst.* 1.13.18.

사건이다. 성육신 계시의 정점(culmen, climax)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로써 드러내심이 곧 이루심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되기 때문이다.<sup>46</sup>

신학의 원리는 유니우스(Franciscus Junius)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플라누스(Amandus Polanus)에 의해서 신학적 교리로 수립되었다. 이들은 원형 계시와 모형 계시의 개념을 통하여서 은혜의 빛(lumen gratiae) 가운데 수행되는 지상의 신학이 영광의 빛(lumen gloriae)을 누리는 천상의 신학과 그 방법이나 목적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함에 주목하였다.<sup>47</sup>

그렇다면 지상의 신학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찾았다. 그들은 “연합의 신학(theologia unionis)”이라는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원형 계시가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모형 계시로서 계시된다고 본 것이다.<sup>48</sup> 여기에서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finitum non capax infiniti)는 개혁주의의 원리가 침해받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증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학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sup>49</sup>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역동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세웠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한에 있어서 고유한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한에 있어서

---

46 Cf.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 and Calvinism*, 29-130; P. Lobstein, “La Connaissance religieuse d’après Calvin,” *Revue de théologi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42 (1909), 53-110.

47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to Theology*, 126-145.

48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to Theology*, 145-153.

49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to Theology*, 153-166.

그러하다.<sup>50</sup> 이러한 칼빈의 이해가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로 수립된 것이다.<sup>51</sup>

### 2.3.2 개혁교리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 교회에 대해서 논하면서 “종교[기독교]의 합당한 가르침(propria religionis placita)”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sup>52</sup>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교리들.”<sup>53</sup>

본문의 세 문장은 각각 삼위일체 교리, 기독교 교리, 전적 은혜의 구원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의 신격을 중심으로,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은혜를 중심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세 가지 교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1:12)이며 “모퉁잇돌”이라고(엡 2:20) 한 말씀을 통하여 참 교회의 본질을 기독교론적으로 논한다.<sup>54</sup>

---

50 *Inst.* 1.1-2. 이와 관련하여, 줄저, 문병호,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 성경교리정해」, 46-47.

51 Cf. Heppes,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5-11.

52 여기에 제시한 것은 통상 일컫는 “본질적인 조항들(*articuli fundamentales*)”에 해당한다. 이는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성의 관계를 다룰 때 자주 논의된다. Cf.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Holy Spirit, Church, and New Creation*, tr. John Vriend, ed.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2004), 318-319.

53 *Inst.* 4.1.12(CO 2.756): “unum esse Deum; Christum deum esse, ac Dei filium; in Dei misericordia salutem nobis consistere, et similia.”

54 *Inst.* 4.2.1.

사실 이 세 가지 교리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함의된다. 삼위일체론은 계시, 창조, 섭리의 교리를 함의하고, 기독교론은 율법과 복음의 실체와 완성을 함께 가르친다.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적용의 서정을 다루는 바, 전적 은혜는 전적 타락을 전제한다. 교회에 관한 가르침은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으로서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연장에 있다. 오직 이러한 측면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몇몇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대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르트 신경으로부터 수립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들 수 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sup>55</sup> 그리고 1910년 미국 북장로교회(PCUSA)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으로 선포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성경의 무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기적들.”<sup>56</sup>

대체로 개혁신학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듯이 죄(guilt), 은혜(grace), 감사(gratitude)를 담고 있다.<sup>57</sup> 여기에서 필자는 칼빈과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사상과 개혁 교회들의 신앙고백서와 신경들을 참조하여 개혁주의를 특징짓는 가르침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를 그 바탕으로 한다.

---

55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56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U.S.A.)*, pt. II, Book of Order (New York: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985), G-2.0500: “(1) the inerrancy of the Bible, (2) the virgin birth, (3) substitutionary atonement, (4) the bodily resurrection of Christ, and (5) Christ’s miracles.”

57 Cf. Howard G. Hageman, “Guilt, Grace, and Gratitude,” in *Guilt, Grace and Gratitude: A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Commemorating Its 400<sup>th</sup> Anniversary*, Donald J. Bruggink (New York: Half Moon Press, 1963), 1-19.

## [성경의 성령 영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오하다. 성경의 권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다.<sup>58</sup> 성경은 그 규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있어서도 무오하며, 사상과 문자에 있어서 무오하다.<sup>59</sup>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원저자는 하나님 이시다. 인간 저자들은 이차적이다. 그들이 받은 말씀과 기록이 모두 정확무오하다.<sup>60</sup>

##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한분 하나님이 세 위격-세 인격, 세 위격적 존재-으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함께 받으시고,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 삼위 각각은 고유한 특성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며, 그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일하신다.<sup>61</sup> 성자는 성

---

58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1959), 11-15; Roger Nicole, "John Calvin and Inerranc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5 (1982): 427-431.

59 W. Sanday, *Inspiration, Eight Lectures on the Early History and Origin of the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London: Longmans, Green, 1893), 3; H. D. McDonald, *Theories of Revelation: An Historical Study 1860-1960*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3), 196-373.

60 James Orr, *Revelation and Inspir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6), 162-169, 197-218;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9. 워필드에 의해서 "계시기록의 영감"과 더불어 "계시구술의 영감"이 확고하게 주장되었다.

61 Warfield,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n *Calvin and Augustine*, 233-252; "The Biblical Doctrine of the Trinity," in *The Works of Warfield*, 2.133-172; Herman Bavinck, *Reformed*

부로부터만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래하신다. 성부는 일의 시작이시며, 성자는 지혜시며, 성령은 능력과 작용이시다.<sup>62</sup>

[언약신학: 구속사적-구원론적 이해]

만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협약에 따라 구속주, 구속 방식, 구속백성을 정하셨다. 구속주는 제2위 성자 하나님, 구속방식은 대속의 방식, 구속백성은 택한 백성으로 정하셨다. 이 작정을 역사상 성취하시기 위한 경륜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타락 후 사람은 모두 사망의 형벌과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율법을 모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의를 다 이루셨다. 그 의가 우리의 영생의 값이 되었다. 주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그저 전가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주께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다 이루셨다. 그리하여 가장 값진 것을 이루시고-구속사적 성취-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셨다-구원론적 적용. 신구약은 전체로 이를 계시하고 증언한다.<sup>63</sup>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 위격적 연합 교리]

---

*Dogmatics, vol. 2, God and Creation*, tr. John Vriend, ed.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2004), 296-322.

<sup>62</sup> *Inst.* 1.13.18;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2.3. 이와 같이 앞으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으로부터 장(章)과 조(條)로 인용함.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n Philip Schaff, ed.,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3, *The Evangelical Protestant Creeds with Translations* (Grand Rapids: Baker, 1996, reprint of 1931 edition), 600-673.

<sup>63</sup> 이에 대해서는 본고 2.2.1 참조.

대속의 의를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므로 친히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셨다.<sup>64</sup> 아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sup>65</sup>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으로써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리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양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 그분은 종으로 자신을 드려 우리의 주가 되셨다.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날마다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선지자로 여전히 증보하신다.<sup>66</sup>

[보혜사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양자의, 주의 영이라고 불리는 바,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으로서, 아들의 구속의 의를 전가하신다.<sup>67</sup> 성령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통치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일반은총적 역사를, 구원의 백성에게 특별한총적 역사를 행하신다.<sup>68</sup> 보혜사 성령은 생명

---

64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2, 387-397; Warfield, "The Person of Christ," in *The Works of Warfield*, 2.175-209; Donald MacLeod, *The Person of Christ* (Downers Grove, IL: IVP, 1998), 121-152.

65 여기에서 제한 속죄 교리가 논의된다. "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 Second Head, 1-9, in Philip Schaff, ed.,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3, *The Evangelical Protestant Creeds*, rev. (Grand Rapids: Baker, 1983), 586-587.

66 Warfield, "Christ Our Sacrifice," in *The Works of Warfield*, 2.401-435;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Sin and Salvation in Christ*, 475-482;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The Claims of Truth* (Carlisle, PE: Banner of Truth, 1976), 62-76.

67 Cf. *Inst.* 3.1.1-3; 3.2.39; 3.3.9;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3, *Sin and Salvation in Christ*, 499-508; Sinclair B. Ferguson, *The Holy Spirit* (Downers Grove, IL: IVP, 1996), 35-56. 우리가 아래에서 보듯이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며 그의 의의 전가를 그 사역의 중심으로 보는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을 살리는 영-중생의 영이시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 그리하여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친히 행하시는 은혜를 누린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한 중보를 감당하시고, 진리를 새롭게 하시고 친히 영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고, 성도는 그 의로 말미암아 머리가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께로 자라간다.<sup>69</sup> 그러므로 성령을 단순한 영기(靈氣)나 기적의 현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다.<sup>70</sup>

#### [전적타락과 전적은혜]

주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전인격적이며 전체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부패하고 무능해졌으며 모태에서 조성될 때 이미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다. 타락으로 인하여 순전함을 잃어버린 인류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순수한 지식도, 의지도 상실했다.<sup>71</sup> 그러므로 오직 영원한 작정에 따른 언

68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15-32, 33-125, 126-343.

69 Cf.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2, *Eleventh through Seventeenth Topics*, 501 ff.; John Owen, *The Holy Spirit: His Gifts and Power* (Grand Rapids, 1960, rep.); Berkhof, *Systematic Theology*, 423-431; Anthony A. Hoekema, *Saved by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9), 28-67.

70 Cf. Richard B. Gaffin, Jr., *Perspectives on Pentecost*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9), 13-41.

71 Cf. *Inst.* 2.1-5;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2, 227-277; “The Canons of the Synod of

약의 선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대속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전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sup>72</sup> 이 은총이 만세 전에 택한 언약의 후손들에게 임한다. 선택은 무조건적이며 공로 없는 은혜로 말미암고, 유기는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로 말미암는다.<sup>73</sup> 무조건적으로 이루신 구원이므로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sup>74</sup> 성도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미래를 목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을 산다.<sup>75</sup>

#### [율법과 복음의 역동적 이해]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율법은 그 본질상 선하고, 거룩하며, 신령하다. 다만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저주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율법은 언약의 법이므로 명령과 함께 약속이 있다. 그리하여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계시한다. 율법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죄사함과 의의 전가의 은혜를 선포한다.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지 않으며 신약과 구약이 그리하듯이 그 실체에 있어서 공히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칭의 단계의 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진정 율법을 즐거워하

---

Dort,” Third and Fourth Heads, 1-3 (587-588); .

72 “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 Third and Fourth Heads, 4-17 (588-592).

73 Cf. *Inst.* 3.12-14; “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 First Head, 1-18 (581-585).

74 이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로 논해진다. Cf. *Inst.* 3.24.6-11; “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 Fifth Head, 1-15 (592-595); Heppie,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581-589.

75 이는 칼빈에 의해서 전개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Inst.* 3.6-10.

며 순종하는 성화 단계의 율법에까지 미친다. 오히려 후자가 율법의 본래적 기능에 더욱 부합한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기 때문이다.<sup>76</sup>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요체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뜻을 다하여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sup>77</sup> 언약의 법으로서 율법은 오직 복음으로만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오직 복음으로만 계시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이다.<sup>78</sup>

#### [교회의 본질과 표지, 그리고 은혜의 방편]

교회는 비가시적이며 가시적이다. 비가시적 교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속한 택함 받은 성도의 총수(總數)로 이루어진다.<sup>79</sup> 가시적 교회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 거행을 표지로 삼고 마찬가지로 권징의 합당한 시행을 힘써야 한다.<sup>80</sup> 교회는 유일하신 증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연합체로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머리이신 그분께로 자라간다. 하나님은 직분을 세워 교회를 돌보신다. 지상의 성도가 그러하듯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주님이 한분이시듯 교회도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거룩하다.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사도적이다.<sup>81</sup> 참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이다. 오직 말씀

76 Cf. Byung-Ho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Rule of Living and Life-Giving*, 84-89, 213-245.

77 *Inst.* 3.19. 칼빈은 이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요체로 여긴다.

78 Cf. *Inst.* 2.7.1-13; 2.9; 3.19;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3,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259-456; John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55), 9-78; Berkhof, *Systematic Theology*, 614-615.

79 *Inst.* 4.1.1-3; Heppe,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657-669.

80 *Inst.* 4.12;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76-578; Edmund P. Clowney, *The Church* (Downers Grove, IL: IVP, 1995), 99-111.

을 듣는 믿음이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은혜로 역사한다. 또한 성도는 성례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로 제시한다. 성례는 둘이 있으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의 표로서의 세례와 그 연합의 계속의 표로서의 성찬이다.<sup>82</sup> 성도는 기도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행하며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여 얻게 된다.<sup>83</sup>

### 3 결론: 한국 개혁주의가 서 있는 자리

한국 교회는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립된 개혁주의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받아들였다.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초기 선교사들은 개혁신학에 대한 식견이 깊었으며 신앙 또한 그에 걸맞게 경건했다.<sup>84</sup> 특히 보수적인 장로교 합동교단은 12신조를 받으며 그 서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信徒揭要書)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공표함으로 신학과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했다.<sup>85</sup> 이러한 신경과 신앙고백서(신도게요서)와 요리문답서에 전개된 신학은 죽산 박형룡 등에 의하여 굳건하게 견지되어 왔다.<sup>86</sup>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건들은 칼빈의 신학을 계승한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신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sup>87</sup>

81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Holy Spirit, Church, and New Creation*, 320-325.

82 *Inst.* 4.14-17;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Holy Spirit, Church, and New Creation*, 523-692.

83 *Inst.* 3.20;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3, 692-709.

84 Cf.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실로암, 1988); 박용규, 「한국 장로교 사상사: 한국교회와 성경의 권위」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2).

8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992), “12신조,” 19.

86 Cf. 이상웅, “박형룡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혁논총」 제14권(2010): 51-82.

87 Cf. James S. McEwen, *The Faith of John Knox* (London: Lutterworth, 1961); Benjamin B.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개혁주의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고찰하고, 그것에 오해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것의 원리를 살핀 후, 그것을 특징짓는 교리들을 제시하였다. 역사상 개혁교회는 장로교를 포함하여 다양한 토양 가운데 발전하여 왔다. 개혁교회는 특히 각 교회의 신경과 신앙고백서, 신앙교육서 등을 통하여 칼빈 이후 주창되었던 오직 성경의 원리를 심오하게 구현하여 왔다.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 서 있는 자리를 살피는 접근법은 다양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과 부합하느냐를 살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를 “성경”이라고 명명한 제 일장에서 분명히 천명한다.<sup>88</sup>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하고 무오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성경 자체가 성경해석의 법칙이 된다.<sup>89</sup> 성경의 권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다.<sup>90</sup>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이다.<sup>91</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개혁주의의 입장을 반영한다.<sup>92</sup> 하나님의 주권은 “신비한

---

Warfield, *The Westminster Confession and Its W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1; repr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Homes Rolston III, *John Calvin versus the Westminster Confession* (Richmond: John Knox, 1972); John H. Leith, *Assembly at Westminster: Reformed Theology in the Making* (Richmond: John Knox Press, 1973); Robert Letham, *The Westminster Assembly: Reading Its Theology in Historical Context* (Phillipsburg, NJ: P&R, 2009), 1-44.

88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5, 6.

89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2, 4, 5, 6, 9.

90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4.

91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10.

92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2.1-3.

예정의 교리”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예지예정론을 반대하고, 선택과 유기가 만세 전에 미리 정해졌다는 이중예정을 뚜렷이 공표한다.<sup>93</sup> 이것이 전적타락 교리와 함께 천명된다.<sup>94</sup> 타락한 인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서 은혜가 아니면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sup>95</sup> 교회는 끝까지 불드시는 하나님의 견인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유일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모인 언약 공동체이다.<sup>96</sup> 무형(비가시적)교회와 유형(가시적)교회는 모두 보편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sup>97</sup>

우리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는 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분명하다. 그것은 언약신학으로 가장 뚜렷하게 특정되는 개혁신학과 신앙-곧 역사상 그 정통성이 변증된 “개혁주의”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죽산은 개혁주의의 신학원리를 분명히 개진하여 오직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만 신지식을 수납하게 됨을 강조하였다.<sup>98</sup> 죽산은 “정통신학은, 신구약 성경을 천계(天啓)와 영감(靈感)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법칙으로 인정하는 초자연적인 성경관을 가진다”고 피력하여 그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였다.<sup>99</sup>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원리에 정확하게 잇대어 있다.

---

93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3.2.3, 5, 8.

94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6.2-6.

95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7.3.

96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7.1; 18.1; 25.6.

97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25.1-2.

98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I, 「교의신학·서론」(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143-150.

99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VIII, 「현대신학비평 상권」(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26.

참고문헌

-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실로암, 1988.
- 문병호. “신학자로서의 칼빈.” 『칼빈과 한국교회』. 오정호 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71-208
- 박용규. 『한국 장로교 사상사: 한국교회와 성경의 권위』.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2.
- 이상웅. “박형룡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혁논총』 제14권(2010): 51-82.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4 vols. Translated by John Vriend. Edited by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2003.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New Edition containing the full text of Systematic Theology and the Original Introductory Volume to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6.
- Bornkamm, Heinrich. *The Heart of Reformation Faith*. Translated by John W. Doberstein.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 Bruggink, Donald J. *Gulit, Grace and Gratitude: A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Commemorating Its 400th Anniversary*. New York: Half Moon Press, 196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Ferguson, Sinclair B. *The Holy Spirit*. Downers Grove, IL: IVP, 1996.
- Fuhrmann, Paul T. *God-Centered Religion*. Grand Rapids: Zondervan, 1942.
- Gaffin, Richard B. Jr. *Perspectives on Pentecost*.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9.
- Ganoczy, Alexandre. *The Young Calvin*. Translated by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7.
- Helm, Paul. *A Guide for the Perplexed*. London: T&T Clark, 2008.
- Heppe, Heinrich.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Edited by Ernst Bizer, Translated by G. T. Thoms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0.
- Hesselink, I. John.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Grandville, MI: Reformed Church Press, 1988.
- Hillerbrand, Hans J. *The World of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1981.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3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95, Reprint.
- Hoekema, Anthony A. *Saved by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9.

- Knox, John. "An Answer to the Cavillations of an Adversary Respecting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Works of John Knox*, vol. 5, edited by David Laing. Edinburgh: Bannatyne Club, 1856.
- Krusche, Werner.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53.
- Leith, John 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 Way of Being the Christian Community*.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rev. ed.
- Lillback, Peter A.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1.
- MacLeod, Donald. *The Person of Christ*. Downers Grove, IL: IVP, 1998.
- McDonald, H. D. *Theories of Revelation: An Historical Study 1860-1960*.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3.
- McEwen, James S. *The Faith of John Knox*. London: Lutterworth, 1961.
-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Meeter, H. Henry.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Kregel, 1960.
- Byung-Ho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Rule of Living and Life-Giving*. Milton Keynes, UK: Paternoster, 2006.
- Muller, Richard A.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vol. 1, Prolegomena to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7.
- \_\_\_\_\_.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Grand Rapids: Baker, 1986.
- Murray, 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1959.
- Niesel, Wilhelm. *Was heisst reformiert?* Munich: Kaiser Verlag, 1934.
- Oberman, Heiko A. *The Reformation: Roots and Ramifications*. Grand Rapids: Eerdmans, 1994.
- Orr, James. *Revelation and Inspir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6.
- Osterhaven, M. Eugene. *The Faith of Church: A Reformed Perspective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2.
- \_\_\_\_\_. *The Spirit of the Reformed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1.
- Owen, John. *The Holy Spirit: His Gifts and Power*. Grand Rapids, 1960, rep.
- Pelikan, Jaroslav. *The Christian Tradition: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octrine, vol. 4, Reformation of Church and Dogma(1300-170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Sanday, W. *Inspiration, Eight Lectures on the Early History and Origin of the Doctrine of Biblical Inspiration*. London: Longmans, Green, 1893.
- Schaff, Philip. ed.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3, *The Evangelical Protestant Creeds with Translations*. Grand Rapids: Baker, 1996, rep.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2, Eleventh through Seventeenth Topics*. Translated by George Musgrave Giger, Edited by James T. Dennison, Jr.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4.
- Van Asselt, Willem J. *Introduction to Reformed Scholasticism*. Translated by Albert Gootje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1.
- Van Til, Cornelius. *The Defense of Faith*.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55.
- Willis, David and Welker, Michael. eds. *Toward the Future of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9.

개혁주의 전통 혹은 그 신앙과 신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다. 가장 현저한 개혁주의의 특징은 신구약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실체를 증보자 그리스도에서 찾는 언약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개혁주의 언약신학은 말씀의 상호성과 함께 조건성을 부각시키기는 하되 오직 그 공로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찾는다. 이는 구속사적-구원론적 원리에 기초해 있다. 즉 역사상 자신의 의를 다 이루신 증보자 그리스도가 계속적 증보 가운데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오직 은혜, 전적 은혜 교리가 중심에 위치한다. 칼빈은 속죄론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언약의 두 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개혁주의의 “하나의 근본원리”는 곧 성경이다. “언약”은 성경 자체를 전체로 함의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를 언약신학으로 특정할 때, 그것은 “sola Scriptura”의 원리를 되새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본고는 이러한 기초 가운데 개혁신학의 특징으로서 성경의 성령 영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 증보자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교리,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 전적타락과 전적은혜, 율법과 복음의 역동적 이해, 교회의 본질과 표지, 그리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를 다룬다. 그리고 현재 한국 개혁주의가 서 있는 자리를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비추어 논구한다.

주제어: 개혁주의, 개혁신학,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스도

## What is Reformed Theology and Faith?

Moon, Byung-Ho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Reformed heritage or its faith and theology has been defined in various perspectives. We can find one of its most outstanding features in the covenant theology, which regards the Old and New Testaments as the infallible revelation of God and finds their substance in Christ the Mediator. Reformed covenant theology emphasizes the conditionality as well as the mutuality of divine ordinations but seeks every merit and righteousness from the active and passive obediences of Christ. In no way can this be investigated without based on the salvation-historical and redemptive perspective. In other words, it should center on the principles of *sola gratia* and *tota gratia*, that is on the irresistible grace of Christ the Mediator who fulfilled all the merits on the cross for us and for our salvation and is still working as the only Mediator for the believers. In the same vein, for example, Calvin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love of God and the grace of Christ are two main props of divine covenantal providences. When the Reformed tradition is defined as the single formula of *sola Scriptura*, it denotes a kind of overarching principle ruling over the whole realm of the kingdom of God revealed in this worl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pursues as significant Reformed characteristics the Biblical inspiration, the being and work of the Trinity, the hypostatic union of Christ the Mediat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 impute Christ's righteousness to us, total depravity and total grace, the Word and Sacraments as means of grace, finally the place we stand in the light of Westminster Confession.

*Key words:* Reformed, Reformation, Calvin, Westminster Confession, Christ.